불교 담론 이끌 지식인 결집체 조직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11월 21일 불교미래포럼 창립
정책 · 사회 · 세계화위원회 구성, 초대 통섭 수불 스님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을 고민하고, 불교 내 · 외 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논의할 불교지식인들의 결집체가 조직된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11월 21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교불련이 주축이 돼 1년 넘게 준비한 불교미래포럼은 불자교수들을 필두로 교계와 학계를 망라하는 불교지식인 결집체를 지향한다.

1987년 출범한 교불련은 30여 년간 각 대학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교수들의 연결망이라는 불교공동체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공동체 역할에만 안주해 대외적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 불교종단 내 · 외부 위기, 국가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한국불교 세계화 등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이에 많은 불자교수들이 별도의 독립기구를 조직해 각종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제16대 교불련 회장에 취임하면서 '불자지식인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했던 심익섭 회장은 이 같은 요청에 공감, 불교미래포럼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불교지식인 네트워크 결성에 나섰다.

심익섭 회장은 "불교계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불자교수들은 뭘 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많았다"며 "그간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지식인들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뜻을 모은 것"이라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불교미래포럼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해 불교내부 현안을 담당하는 '불교정책위원회', 불교의 대국가 · 대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며 역할방안을 모색하는 '불교사회위원회', 한국불교 세계화 및 통불교 관련사업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불교세계화위원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상징적인 총재 역할을 '통섭(通攝)'으로 정했다. 통섭에는 평소 교불련에 많은 관심을 보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추대될 예정이다. 초대회장은 정관 변동이 없는 한 불교미래포럼을 추진한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 맡는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논의 중이다. 통섭과 회장을 비롯해 각 위원장 등 임기는 2년이다.

불교미래포럼은 신행단체가 아닌 만큼 종단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불교 내 · 외 현안을 두루 다룰 계획이다. 또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서 다양한 행사를 치르며 지역불교계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을 밝혔다. 특히 각종 위원회 회의나 공식 포럼을 소박하게 실시해 외양보다는 내실에 충실할 방침이다.

심 회장은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사회 변화를 응시하며, 통섭의 이상으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단순히 교수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각 분야서 활동하는 불자지성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대장정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법회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창립 경과보고 및 취지 설명 △정관 심의 및 의결 △창립취지문 낭독 △통섭 추대 △회장 및 임원진 위촉 △회장 취임사 △통섭 기념법어 △사업계획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진다.

한편 '통섭'은 2005년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1929~)의 저서 〈Consilience〉를 통섭으로 번역한 말이다.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5대 종단,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 발족

11월 10일 차대통령 퇴진 및 새누리당 해체 촉구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 천도교 5대 종단은 11월 10일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우리 5대 종단 종교인들은 불의가 판치는 시대를 끝내야한단 소명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정의를 바로 세움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번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5대 종단이 동참했다.

5대 종단(불교 · 개신교 · 원불교 · 천주교 · 천도교)은 11월 10일 광화문 광장서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불법 부정 대선 개입으로 출발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노동개악, 백남기 농민 살해 등 거쳐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없을 끔찍한 일마저 저질렀다"며 "박 정권은 국정 권리를 자격 없는 측근들에게 넘겨줬다. 대한민국 헌법은 부정됐고, 국민들은 조롱당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잘못은 오로지 '순수한 마음'서 벌어진 실수로 축소시켰으며, 모든 부정은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태'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대해선 "주요 인물들이 최순실에 대해 몰랐다 주장하는데 믿기 어려운 말"이라며 "국정농단의 책임서 벗어날 수 없다. 국회를 통해 박 정권을 견제하기 보단 청와대의 하수인임을 자처해왔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즉각 자리서 물러나고, 새누리당은 해체돼야한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오늘 선언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11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시민대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5대 종단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에 포함된 불교계 단체는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정의평화불교연대, 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통일바루,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불교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지협동조합 등이 포함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월정사 공양보살상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 8일 지정예고… 월인천강지곡 卷上도

평창 월정사 8각 9층석탑(국보 제48호)의 앞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 보살상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사진〉이 국보로 승격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1월 8일 보물 제139호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사진〉을 국보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등 6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본래 국보인 월정사 8각 9층석탑의 남쪽 전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탑과 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탑은 국보로, 공양보살상은 보물로 지정돼 그간 별개의 문화재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며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보 승격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지정예고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발원자와 발원 목적과 내용, 제작 장인 등 조성경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밖에도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환수된 문화재인 국새 황제지보 · 유서지보 · 준명지보를 비롯해 신라 · 중국 시인의 시선집인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 박동형 초상 및 함 등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능 D-7, 母情 불심 수능을 1주일 앞둔 11월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수능 원만성취 기도법회 후 한 여성불자가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합격기원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22회 불교인권상, 알리시아 모랄레스 선정

쿠바국제우호협회 부대표 수상 영예

불교인권위원회는 11월 8일 '제22회 불교인권상' 심사를 실시, 알리시아 코레데라 모랄레스 쿠바국제우호협회(ICAP) 부대표〈사진〉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ICAP는 1960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전 세계 146개국 2,017개 기관과 교류 및 연대, 반전평화 및 인권운동과 국제재난 긴급구호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0년 아이티 지진, 2014년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2015년 네팔지진 피해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특히 모랄레스는 단체 대표로서 전 세계 우호협력을 주도하고, 베트남 · 라오스 · 몽골 등 빈곡국 의료지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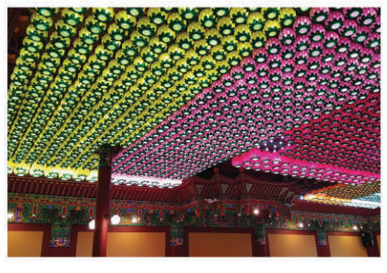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